

대립 넘어 소통·화합 모색

화쟁위, 4월부터 리더십강좌 개설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교의 화쟁사상을 근간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배움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주최하고 불교사회연구소와 평화재단이 주관하는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가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 등 한국불교의 역사를 통해 면면이 내려오는 대안사상과 리더십의 원형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의 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익히고 배워보는 자리이다.

10주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는 정치와 경제, 국제정세, 문화, 국가, 인권, 통일, 화쟁사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한 뒤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오는 4월 11일 입학식과 함께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화쟁리더십의 이론과 실제’이라는 주제로 입학특강을 펼치며 시작된

다. 이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012년의 선택과 국가리더십’,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경제, 대안을 제시한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흔들리는 세계, 어디로 가는가’, 안상수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가 ‘문화로 보는 생명, 평화사상과 화쟁’,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화쟁과 한국 사회의 선진화’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우리시대의 인권을 말한다’, 평화재단 이사장 범윤스님이 ‘21세기 민족미래, 통일을 향한 결단’,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이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와 화쟁사상’ 등을 주제로 강연하며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30세 이상의 불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아카데미 수강 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나 평화재단 홈페이지(www.peacefoundation.or.kr)에서 입학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leadership@peacefoundation.or.kr)로 접수하면 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한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2011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대표의장으로 선출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종교간 화합에 앞장서겠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지협 대표의장으로 추대

현 정부 들어 종교간 갈등과 대립이 위험수위에 이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교간 화합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천명했다. 지난 9일 서울 한국의집에서 열린 한 국종교지도자협의회 2011년도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표의장에 추대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심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교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으며, 이웃종교체협 성지순례 건에 대해 논의했다. 종지협은 오는 4월 경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표의

장으로 선출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천주교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길자연 한기총 회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위원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회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등 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1997년 종교간 화합을 위해 설립된 종지협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총 7개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안정적 중무행정 펼칠 것”

선운사 주지로 재임명된 법만스님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사진)이 지난 11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만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4년 동안 주지 소임을 맡으며 불사도 많이 하고 활발하게 복지사업을 펼쳐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법만스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4년간의 선운사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만스님은 △승려노후 수행마을 완성 △승가교육의 강화 △본·말사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비쳤다.

특히 승려노후 마을 조성과 관련해 법만스님은 “승가복지를 위한 노후수행관 건립의 경우 20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사업”이라며 “현재 부지를 매입해 전기나 수도 등 제반시설을 갖춘 상황이며 앞으로 2~3년 이내에 완공돼 15분 정도의 스님들을 모실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승려노후 수행마을에 치문화체험관을 비롯해 휴게실, 도서관 등으로 이뤄진 마을복지회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승려노후 복지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방침이다. 고창군 종합복지관 운영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 장학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승려노후 복지나 사회복지, 수익사업을 담당할 복지법인의 설립도 준비 중이다.

승가교육의 내실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오는 19일 개원하는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구 재적승에 대한 지원은 물론 동국대학교에 장학금 지급을 통해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 불교 및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교구 신도회 구성 및 선운사 신도회를 조직화하고 내실을 키워나가는 일에도 비중을 둘 계획이다.

한편 법만스님은 지난 1982년 1982년 태허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10월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6년 9월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난 2월 19일 선운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6대 주지 후보로 추대됐다. 엄태규 기자

국제불교학교 합격자 발표

교육원 9명 확정...개원은 3월25일

오는 25일 개원하는 종단 최초의 비구니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3월 면접을 거쳐 최종 입학할 9명의 스님을 확정했다”며 “오는 25일 오후 2시 용인 화운사에서 개원법회를 갖고 학사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면접에 합격한 스님들은 불림, 성원, 성재, 윤성, 원경, 일양, 정효, 청하, 태허스님 등 모두 9명이다.

법랍도 많게는 23년, 적게는 3년으로 다양한 승납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 공부한다. 스님들은 2년 10학기 과정으로 불교교리와 상담, 간화선 등 수행지도법, 선무도 등을 배우며 연1회 6주간 해외연수도 간다. 강사로는 국제불교학교장 무진스님(스위스 법계사 주지), 학감 자운스님(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을 비롯해 외국인 2명이 참여해 지도할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본·말사 주지 인사

3월8일, 10일 중무회의의 결과

			
	현강스님 춘천 석림사	전명스님 대전 성불사	정효스님 거제 백련암
			
보운스님 김해 백룡암	석민스님 철원 대성사	성초스님 가평 대원사	도관스님 영동 법장사
			
효전스님 청양 죽림선원	불일스님 강릉 굴산사	광호스님 대구 지장사	효선스님 장흥 목덕사
			
남현스님 양산 원효암	해운스님 창녕 삼성사	성애스님 성남 장안사	지현스님 봉화 청량사

‘중앙총회’ <1면에 이어>

중앙종무기관의 중무에 대한 정책과 조연도 이어졌다. 특히 승려분한신고 대상자 1만4051명 가운데 2564명에 달하는 승려분한신고 미신고 스님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라는 경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장인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2년내에 특별분한신고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만큼 빠른시일 내에 특별분한신고를 통해 규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원로의원 후보자로 정관스님과 해산스님, 인환스님을 추천하고 원로의원 종하스님의 대종사 특별전형 심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어 법규위원회에 몽산스님과 종성스님, 범의스님, 현봉스님을 선출했다.

또한 재심회위원회에 보원스님, 초심회위원회에 효웅스님, 소청심사위원회에 범준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혜오스님, 인사심의를위한특별위원회에 종호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입법비비되거나 종헌중범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종헌개정및종범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총무원법 중무원법과
교육법 법계법은 개정
원로의원 후보자로
정관 해산 인환스님 추천

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했다. 종헌 중범제개정특위는 법만스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 만당 월공 주경 심우 정범 덕문 지현 범해 진화 상덕스님 등이 선출됐다.

종헌중범제개정특위는 △종헌 개정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한 개정안 마련 △종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 △중앙총회 운영에 대한 개정안 마련 △승려법, 사찰법, 법인법, 징계법 등 제종범에 대한 연구검토 및 제개정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15대 중앙총회 전반기동안 활동한다. 이와함께 중앙총회 재무분과위원회에 ‘흥천사문제정상하를위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내용은 중앙총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중앙총회는 중앙종무기관을 중심으로 범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에 대한 동참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신임 원로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정관스님은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54년 교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7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과 대한불교여린이지도자연합회장,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해산스님은 윤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60년 석능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윤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약수사와 사자암,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웅화사 주지와 선운사승가대학 운영위원 소임을 맡고 있다.

효선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인환스님은 1953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6년 해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환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거쳐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와 조계종 법계위원 소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도 해인총림율원 신입생 모집공고

다음과 같이 2011년도 해인총림율원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_ 종단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자와 비구스님
- 모집인원 _ 〇명 내외
- 전형방법 _ 면접전형
- 접수일자 _ 2011년 4월 7일(음 3월 5일)까지 제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
- 전형일자 _ 수시면접(4월 7일 까지 마감)
- 문의전화 _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안리 10번지 해인총림 율원
율원장실 : 055-934-3135 율감실 : 055-934-3138
율 원 : 055-934-3136, 3137

- 제출서류
- 1. 입망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 2. 성적증명서 1통
- 3.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 1통
- 4. 증명사진(반명함판) 3장
- 5. 건강진단서 1통
- 6. 종단교육기관교수·은사스님추천서 각1통
- 7. 본인도장

불기2555(2011)년 3월 16일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해인총림율원